

독일유럽학과

Department of German and European Studies

1. 학과소개

(1) 학과사무실

가. 위치: 대학원 4층 415호
나. 연락처: 전화: 820-6545

(2) 학과소개

중앙대학교 <독일유럽학과>는 독일 정부 산하 독일학술교류처(DAAD)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독일전문가, 유럽전문가 양성과정이다. DAAD가 지원하는 <독일유럽학과>는 1991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처음 개설된 이후 세계 11개국 20개 대학에 세워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독일유럽학과>는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베이징대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선정된 DAAD 지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다.

중앙대학교 <독일유럽학과>는 정치, 경제, 노동,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분야에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으로서 '독일/유럽 모델'을 연구하고 적용할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4년 3월에 석사과정을, 2016년 3월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한-EU FTA 체결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의 교류협력이 증가하고, 독일/유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중앙대학교 <독일유럽학과>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DAAD 자매학과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전문가, 유럽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일유럽학과 대학원생은 DAAD의 지원으로 두 학기 동안 독일/유럽 현지연수를 다녀올 수 있고, DAAD가 제공하는 다양한 국제연수와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3) 교육목표

(4) 교수진

가. 독일전문가, 유럽전문가 양성

중앙대학교 <독일유럽학과>의 일차적인 교육 목표는 독일/유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는 DAAD 지원을 받는 세계 명문대학 <독일유럽학과>의 공통된 교육목표이다. 독일과 유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깊은 안목을 갖춘 전문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일/유럽과의 교류가 급증하고 독일/유럽 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다.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독일/유럽 전문가의 양성은 시급하다.

나. 국제적 안목을 갖춘 지역전문가 양성

독일/유럽 현지 연수에 선발된 대학원생은 <독일유럽학과>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두 학기 동안 독일/유럽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다. 독일/유럽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국제학술교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독일/유럽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적 시야를 갖춘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

다. 특성화된 전문가 양성

중앙대학교 <독일유럽학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학제적으로 통합하는 교과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사회과학에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통찰력을 주고, 인문학에는 사회과학의 분석력과 비판능력을 불어넣어 두 학문 영역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는 통합적 지역학을 지향한다. <독일유럽학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하여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경제/복지, 교육/환경, 문화/미디어라는 3대 특성화 트랙을 운영한다.

| 교수명 | 직위 | 최종출신학교 | 학위명 | 연구분야 | 전화번호 | E-mail |
|-----|----|--------|-------|-------|------|-------------------|
| 강진숙 | 교수 | 라이프치히대 | 언론학박사 | 미디어문화 | 5486 | jskang1@cau.ac.kr |

| | | | | |
|-----|------|---------|---------|--------|
| 김누리 | 교수 | 브레멘대 | 문학박사 | 독일통일 |
| 김병기 | 교수 | 뷔르츠부르크대 | 법학박사 | 독일행정법 |
| 김연명 | 교수 | 중앙대 | 사회복지학박사 | 사회복지 |
| 김주호 | 연구교수 | 프랑크푸르트대 | 사회학박사 | 경제사회학 |
| 김중권 | 교수 | 고려대 | 법학박사 | 행정법 |
| 김한식 | 교수 | 파리10대 | 문학박사 | 프랑스문화 |
| 노영돈 | 교수 | 뷔르츠대 | 문학박사 | 독일문화 |
| 류신 | 교수 | 브레멘대 | 문학박사 | 독일예술 |
| 배기정 | 연구교수 | 마르부르크대 | 문학박사 | 비교문학 |
| 백승욱 | 교수 | 서울대 | 사회학박사 | 세계체제론 |
| 백훈 | 교수 | 노던일리노이대 | 경제학박사 | EU경제 |
| 신광영 | 교수 | 위스콘신대 | 사회학박사 | 유럽복지 |
| 신진욱 | 교수 | 베를린자유대 | 사회학박사 | 정치사회학 |
| 오성균 | 교수 | 보쿰대 | 문학박사 | 독일문화 |
| 유성재 | 교수 | 보쿰대 | 법학박사 | 노동법 |
| 육영수 | 교수 | 위싱턴대 | 문학박사 | 유럽근현대사 |
| 이종영 | 교수 | 뷔르츠부르크대 | 법학박사 | 독일헌법 |
| 장훈 | 교수 | 노스웨스턴대 | 정치학박사 | 유럽정치 |
| 정용숙 | 연구교수 | 보쿰대 | 역사학박사 | 독일사 |
| 차용구 | 교수 | 파사우대 | 역사학박사 | 독일사 |
| 최성환 | 교수 | 본대 | 철학박사 | 독일철학 |

2. 학과내규

(1) 교과과정 구성

가.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재학 중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은 석사과정은
 9학점 까지만 허용함.

나.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구성

1) 석사과정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2학점

② 교과목 체계도 : 전공필수과목 2과목, 개설된 전공
 선택과목 중 선택, 해외연수 시 한 학기에 최소 3학
 점, 최대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독일유럽학 | |
|-----------------|---|
| 전공필수과목 [2과목] | 현대유럽의 이해 현대 독일의 사회와 문화 |
| 전공선택과목 | 고급 독일어 특강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비교복지국가론 독일의 환경정책 유럽의 사회모델 유럽 정치와 사회 유럽 문화와 예술 EU경제론 독일통일과 사회변동 |

| | 독일유럽학 |
|------------|--|
| | 유럽통합의 역사 68혁명과 신유럽의 탄생 유럽통합과 민족주의 유럽헌법 유럽의 역사 유럽의 교육정책과 제도 영화로 보는 독일문화 유럽의 문화정책과 대중문화 독일의 미디어 교육과 문화 |
| 해외취득 학점 | 이수과목의 전공 적합성 여부는 해외취득학점 인정기준(3-아 참조)에 따라 평가 |

부칙:

- 위의 교과과정은 2018년 1학기부터 독일유럽학과의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 2017년 2학기까지 시행된 구 교과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대체규정을 따른다.
 - 구 교과과정의 '현대유럽의 이해'(공통필수)는 개정 교과과정의 '현대유럽의 이해'(전공필수)로 대체한다.
 - 구 교과과정의 '독일어'(공통필수)는 개정 교과과정의 '현대 독일의 사회와 문화'(전공필수)로 대체한다.
 - 구 교과과정의 'EU문화산업과 대중문화'(전공필수)는 개정 교과과정의 '유럽의 문화정책과 대중문화'(전공선택)으로 대체한다.
- 구 교과과정에 있었으나 개정 교과과정에서 폐지된 과목들을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박사과정

-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 총 64학점 (전공 60학점, 전공연구 4학점)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포함)
- ② 교과목 체계도 : 전공필수과목 2과목, 개설된 전공 선택과목 중 선택, 해외연수 시 한 학기에 최소 3학점, 최대 12학점을 이수한다.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박사학위과정에서 전공연구는 3차 학기에 전공연구 II를, 4차 학기에 전공연구III을 이수(총 4학점).

| | 독일유럽학 |
|-----------------|---|
| 전공필수과목 [2과목] | 현대유럽의 이해 현대 독일의 사회와 문화 |
| 전공선택과목 | 고급 독일어 특강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유럽의 비교복지국가론 독일의 환경정책 유럽의 사회모델 유럽 정치와 사회 유럽 문화와 예술 EU경제론 독일통일과 사회변동 유럽통합의 역사 68혁명과 신유럽의 탄생 유럽통합과 민족주의 유럽헌법 유럽의 역사 유럽의 교육정책과 제도 영화로 보는 독일문화 유럽의 문화정책과 대중문화 독일의 미디어 교육과 문화 |
| 해외취득 | |

| 독일유럽학 | |
|-------|---|
| 학점 | 이수과목의 전공 적합성 여부는 해외취득학점 인정기준(3-아 참조)에 따라 평가 |

부칙:

1. 위의 교과과정은 2018년 1학기부터 독일유럽학과의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2. 2017년 2학기까지 시행된 구 교과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대체규정을 따른다.
 - 1) 구 교과과정의 '현대유럽의 이해'(공통필수)는 개정 교과과정의 '현대유럽의 이해'(전공필수)로 대체한다.
 - 2) 구 교과과정의 '독일어'(공통필수)는 개정 교과과정의 '현대 독일의 사회와 문화'(전공필수)로 대체한다.
 - 3) 구 교과과정의 'EU문화산업과 대중문화'(전공필수)는 개정 교과과정의 '유럽의 문화정책과 대중문화'(전공선택)으로 대체한다.
3. 구 교과과정에 있었으나 개정 교과과정에서 폐지된 과목들을 이미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지도교수 배정

- 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지도교수별로 석·박사학위과정생을 연간 8인까지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 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의 석좌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연구전담교수, 강의전담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과 교수 1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 다. 지도교수는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교원으로 배정한다.
- 라.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최근 3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3편 이상 저자로서 게재한 교수에 한한다.
- 마. 지도교수는 2차 학기 말까지 정한다.

(3) 해외연수

1. 석·박사과정생 해외연수 체계도

| 교류 기간 | 교류 학차 | 이수 학점 |
|-------|----------|---------|
| 6개월 | 3차 또는 4차 | 3학점 이상 |
| 1년 | 3차 ~ 4차 | 12학점 이상 |

가. 지원 조건

- 1) 두 학기 이상 등록하고 1, 2차 학기에 각각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총 이수학점 가운데 12학점 이상을 본 학과에서 취득한 자에게 지원 자격이 있다.
- 2) 박사과정생의 경우,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해 한 달 내지는 두 달간 독일대학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점이수의 의무는 없다.

나.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1) 신청기간은 학과에서 별도 공지한다.
- 2) 제출서류는 연수신청서(별첨), 대학원 성적표, 어학능력시험자격증 등에 해당한다.

다. 연수생 선발

- 1) 매학기별 학과에서 별도 공지한다.
- 2) 파견 여부를 학과에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수절차를 밟는다.

라. 연수 기간

- 1) 석사 과정생의 연수기간은 한 학기(6개월) 또는 두 학기(1년)이다.
- 2) 박사 과정생은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할 수 있으며, 연수기간은 한 학기(6개월) 또는 두 학기(1년)이다. 논문주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연수기간을 한 달 내지 두 달로 할 수 있다.

마. 연수 방식

- 1) 연수 대학과의 협약을 따른다.

바. 연수비 지원

- 1) 소정의 항공료와 체재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 2) 의무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연수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부를 원칙으로 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3) 연수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연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학과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때까지 소요된 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 4) 연수기간 중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 학과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항공료를 제외한 연수 불이행 기간의 장학금을 월별로 계산하여 반납한다.

사. 결과 보고

- 1) 귀국 후 차기 학기 시작 전까지 학점 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아. 학점 인정

- 1) 의무학점(3학점)을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 2) 유럽대학에서 취득한 이수학점에 대한 인정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3) 1ECTS는 0.6학점으로 인정한다.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4) 석사과정 4차 학기 파견 학생이 귀국 전에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파견 기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도를 받아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전공연구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4) 학위논문

가. 제출자격시험

- 1) 외국어(영어)시험
 - ① 응시자격 : 외국어 시험의 응시는 1차 학기부터 가능하다.
 - ② 외국어 시험 :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추가한다. 외국어시험의 성적은 계열별 상위 70% 내외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최종 합격을 정한다. <개정 2015.9.1.> 한국어능력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영어시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계절 학기에 개설되는 별도의 영어강좌를 수강하여 합격하거나, TOEIC 780점, TOEFL 530점(CBT 233점, IBT 91점), TEPS 664점 이상, IELTS 6급 이상 (다만,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취득하여 어학시험 대체인정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9.1.>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체하려면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35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한국어능력시험 대체인정서(별지제27호 서식)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영어강좌의 수강자격은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자에 한한다. <신설 2014.12.1, 적용 2015학년도 전반기부터>
 - ③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 2) 전공시험

- ①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은 연 2회, 매 학기 초 1개월 내에 실시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3차 학기에 1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차 학기를 마친 후 휴학상태여도 응시 가능하고 취득학점 가운데 본 학과에서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③ 석사학위의 경우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3과목으로 구성된다. 시험과목은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각 1과목으로 하며, 학생선택으로 정한다.
- ④ 박사학위의 경우 「종합시험」은 필기시험 4과목으로 구성되며, 학생선택으로 정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필수과목은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대상 필수과목이 될 수 없다.
- ⑤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한다. 특정 과목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음 종합시험에서 반드시 불합격 과목에 응시해야하며, 1차례에 한해 재 응시할 수 있다.

나. 제출자격

1) 석사과정 제출자격

- ① 논문제출학기의 수강학점과 해외연수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③ 석사학위 청구논문 예심을 통과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자
- ④ 논문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 ⑤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2) 박사과정 제출자격

- ①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 ②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 ③ 국내외 전문학술지(인문사회계열·예술계열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단독, 주저자, 1편의 논문을 게재 혹은 게재확정을 받은 자(다만, 교수업적평가제 연구업적평가 기준에서 계열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 ④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기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 ⑤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한 자
- ⑥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

약서를 제출한 자

다. 예심

- 1) 석사·박사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예비심사의 일환으로 논문계획서를 발표한다.
- 2) 논문계획서 발표는 논문 제출 이전 학기 말 또는 제출 학기 초에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본심을 받을 수 있다.
- 3) 논문계획서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과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논문계획서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 4) 논문계획서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라. 본심

- 1) 석사·박사 학위 청구논문의 본심은 「공개발표」, 「내용심사」, 「구술시험」의 3단계로 진행된다.
- 2) 상기 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 ① 「공개발표」 시기는 해당 청구논문의 본심이 실시되는 학기 초로 한다.
 - ② 심사대상자는 논문형식을 갖춘 완성된 초고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공개발표」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에 응할 수 없다.
- 3) 상기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을 진행한다.
 - ①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은 「공개발표」를 통과한 학기에 실시한다.
 - ② 석사·박사 학위 청구논문의 본심은 지도교수와 본과 전임교수 2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필요할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석사·박사 학위 청구논문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과 평점 평균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3. 독일유럽학과 개설 교과목

(1) 전공필수과목

현대유럽의 이해 (Modern Europe) 3학점

인문학(문학, 역사, 철학)과 사회과학(사회학, 언론정보학, 환경경제학, 법학)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의 모습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7개 분야 12명 전문가

의 목소리를 통해 현대유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습득한다. 특히 현대독일의 주요 국면을 유럽적인 맥락에서 파악한다.

현대 독일의 사회와 문화 (Society and Culture of Modern Germany) 3학점

현대 독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된 강좌이다. 독일 현대정치사 및 정치제도를 개괄하고, 독일사회의 쟁점을 살핀다. 현대독일의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 이해에 목적이 있다. 현대독일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타개할 사회적 상상력을 기른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동서독의 통합과정에서 생겨난 제반 문제에 주목하여, 통일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를 성찰한다.

(2) 전공선택과목

고급 독일어 특강 (German Language) 3학점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일어 지식은 필수이다. 본 강좌는 독일유럽학과 과정의 수강생들에게 현지연수에 필요한 독일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독일어에 그치지 않고 현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전문학술독일어 및 시사독일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3학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일 특유의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현재 유럽의 중심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이 과목은 시장경제의 이념으로서 자유주의 개념과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형 질서자유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를 비교하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어떻게 발전하여왔으며, 내용적으로, 제도적으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어떠한 특징들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아젠다 2010으로 불리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혁이 추진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재정, 통화, 노동, 산업, 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 독일경제 일반을 탐구한다.

비교복지국가론 (Comparative Welfare States) 3학점

이 과목에서는 유럽의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와 그 발전과정을 다룬다. 이를 통해 유럽의 복지제도의 역사적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검토한다. 나아가 유럽인들의 생애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 교육, 노동, 결혼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 유럽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독일의 환경정책 (Environmental Policy in Germany) 3학점

독일의 환경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현상 등의 기후 재앙과 피크오일 등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는 오늘날 독일의 환경정책과 에너지 전환은 모든 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 강의는 독일 환경운동이 환경정당으로 조직화하여 환경문제를 정치사회적 의제로 정착시킨 과정을 살펴본 후, 독일 환경정책의 전개 과정과 부문별 정책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울러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유럽의 사회모델 (Social Model in Europa) 3학점

본 과목은 현대 유럽의 사회시스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개인들의 생애과정과 관련된 가족, 교육, 일, 결혼과 복지 등에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유럽 정치와 사회(Politics and Society of Europe) 3학점

본 교과목은 유럽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분석능력 제고를 위해, 영국·프랑스·독일 3개국의 현대 정치와 사회를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안 및 사례들을 논의한다. 특히,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유럽통합의 과정에도 주목하여, 이들 유럽 3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정치, 사회적 동학도 함께 살펴본다.

유럽 문화와 예술(Culture and Art of Europe) 3학점

유럽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개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특정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유럽의 문화적 현상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EU 경제론 (Economy of EU) 3학점

1951년 파리협약으로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1957년 로마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002년 단일통화 유로가 출범하면서 세계 유일의 '경제통화동맹'(EMU)을 이룬 EU는 2007년 리스본 협약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제적인 법적 지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EU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면서 현재 '재정동맹'(Fiscal Union)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과목은 EU의 통합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유럽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EU의 경제통합 과정과 기구 및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독일통일과 사회변동 (German Reunification and Social Change) 3학점

독일통일의 과정을 살피고, 그것이 통일독일 사회에 몰고 온 거대한 변동을 추적하는 강좌이다. '사회변동'은 사회과학 또는 사회학의 중요한 이론적 영역으로서, 사회변동론의 다양한 논의들과 개념들을 짚어보는 것도 강좌의 한 목적을 이룬다. 독일통일과 사회변동을 살피면서 한반도 통일과 포스트 통일 시대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벌어질 변화를 위한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점이다.

유럽통합의 역사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3학점

'하나의 유럽'을 위한 유럽인들의 노력을 유럽역사의 흐름 속에서 추적하고 '유럽 이념'을 만들어 온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과정을 짚어본다. 또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기원, 서구로서의 유럽, 독일적 유럽, 현대성의 유럽, 대륙으로서의 유럽, 그리고 유럽헌법 이념의 형성을 이해하고, 유럽연합(EU)의 창설을 가져온 주요 법안(treaties)들과 EU의 구조와 기능을 논의하며, EU의 주요 기구(이사회, 의회 및 위원회)와 EU헌법기구화의 주요 현안들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EU의 변화에 대해 예지적 안목을 갖게 한다.

68혁명과 신유럽의 탄생 (68 Revolution and the Birth of New Europe) 3학점

1968년을 전후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68혁명은 현대유럽 탄생의 발원지이다. 이 강좌는 68혁명의 전개과정을 추적하고, 68혁명이 몰고 온 '거대한 전환'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개별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이를 통해 신유럽의 형성에 68혁명이 미친 영향관계를 탐구하고, 여전히 프리68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제반 문제를 '문화혁명의 부재'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검토해본다.

유럽통합과 민족주의 (European Integration and Nationalism) 3학점

지역학적인 차원에서 유럽통합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의 문화적 특징과 유럽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의 가치관과 유럽통합의

가치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럽을 통합하려는 구심력과 개별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원심력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살피는 것은 유럽통합의 복잡다단한 내적 동학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강좌는 유럽통합의 심연의 내적 동학을 체계적으로 살피기 위해 개설되었다.

유럽헌법 (European Constitution) 3학점

EU의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EU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강좌는 유럽헌법을 중심으로 EU의 법체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리스본 조약을 중심으로 EU의 사법질서 및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개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럽헌법 및 EU법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유럽의 역사 (European History) 3학점

이 과목에서는 유럽의 역사를 근대 이후 독일어권의 성장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수업에서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역사를 다룰 때는 급속한 산업화와 정치적 저발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와 같은 독일사의 특수한 길(Sonderweg)이 나치체제의 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축으로서, 유럽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5대 강국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오스트리아의 발전과 쇠락을 검토하게 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역사에 대한 조명은 산업혁명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한 영국과 공화정의 발전을 가져왔던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역사의 전개과정과 긴밀하게 연결 짓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교육정책과 제도 (Education Policy and System of EU) 3학점

강의 주제는 “유럽의 교육정책과 제도: 독일과 스웨덴을 위주로”이며 이차대전 이후 초·중·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강의는 네 분야로 나뉘어진다. 첫째, 강의 계획과 내용 및 목적 등을 소개한다. 둘째, 유럽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짚는다. 셋째, 독일과 스웨덴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인성발전과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저력으로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넷째, 교육과 관계된 개별 주제를 천착한다. 선별된 주제는 교육과 경제·노동시장과의 관계, 교육이 사회·복지(평등, 불평등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 세계학력평가(PISA) 쇼크와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해 천착한다.

영화로 보는 독일문화 (German cultures in Movies) 3학점

도시공간과 영화공간
영화속의 도시공간과 도시역사를 서술한 다큐멘터리 / 영상 이미지를 연구한다.

도시의 이미지가 영화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시대권력이미지가 영화공간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작동하는지를 연구 한다

문학과 영화공간

문학의 텍스트와 영화공간의 관계성/ 이질성 상호작용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영상인류학과 구술사

영상인류학 관점에서 영상물의 기록물을 가지고 한 개인의 역사와 집단의 역사공간을 연구한다. 구술사적 관점과 집단 기억의 관점을 비교 연구한다.

이미지문화사 와 영상연구

이미지의 문화현상과 영상연구의 관계를 연구한다.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변화에 따른 영상문화의 소비현상과 생산형태를 규정하고, 새로운 영상언어와 영상문화를 연구 한다,

유럽의 문화정책과 대중문화 (Cultural Policy and Popular Culture in Europe)) 3학점

유럽연합은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순수예술을 포함하여 TV와 영화, 음악 등의 대중문화와 이를 확장한 광고와 디자인, 건축 등의 영역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이 강의는 현재 ‘창조유럽(Creative Europe)’을 구상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문화산업의 특성과 전략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간 문화교류정책을 통해 실현된 문화 간 대화의 성과들이 어떻게 문화다양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글로벌 전략으로 수렴되는가를 주요 논의 점으로 삼는다.

독일의 미디어 교육과 문화 (Media Education and Culture in Germany) 3학점

독일의 미디어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상에 근거하여 미디어 교육의 목표로서 조명되는 미디어능력의 기본 개념과 이론 체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미디어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미디어능력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정의, 그리고 구성범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의 현안과 쟁점들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미디어교육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가 능동적,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능력 개발 방안 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아가 소수자 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사례와 쟁점들을 이해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 가능성과 함의를 탐색한다.

(4) 전공연구

전공연구 I (Studies in Major Field I) 2학점

전공연구 II (Studies in Major Field II) 2학점

전공연구 III (Studies in Major Field III) 2학점